



박찬호

# 가을 야구 위해 치고 또, 달린다

## 8월 타율 0.406 ... 여름보다 뜨거운 박찬호

대체선수대비 승리 기여도  
8월 KBO 리그 타자 1위  
오직 KIA가 이기는 데 최선



야구에 눈 뜬 박찬호가 KIA 타이거즈의 뜨거운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 박찬호'는 믿음의 이름이다. 박찬호는 지난해 8월 22경기에서 0.333의 타율을 기록했다. 2개의 홈런으로 10타점을 올렸고, 10개의 도루도 성공했다.

올 시즌에도 박찬호는 8월 16경기에서 타율 0.406의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을 기반으로 시상하는 2023 KBO 리그 8월 '셀힐릭스플레이어' 중간 순위에서도 박찬호는 1.65로 타자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더 이상 '깜짝 활약'이 아닌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다.

박찬호는 "잘 될 때 안 될 때 누구나 사이클이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절정을 찍었고, 당시에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기는 했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선수가 됐다고 생각한다. 풀 시즌을 치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는 것 같다"며 "4월 박막을 쳤을 때도 불안하지는 않았다. 부상에 대한 이슈는 있었으나 그것만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찬호는 지난 겨울 힘을 키우는데 주력하면서 손목 부상을 입었다. 부상 여파로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서 기술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다. 결국 실전 위주로 진행된 일본 오기나와 캠프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부상 악재로 힘든 시즌 초반을 보냈다. 하지만 손목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박찬호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타격으로 KIA 타선의 한 축이 됐다.

박찬호는 "결과가 안 좋더라도 정타가 나온다. 때 타석 기대가 된다. 최근에는 선구안 컨디션이라고 해야 되나, 공보는 컨디션이 좋다. 볼, 스트라이크 판단이 잘 되고 있으니 유리하게 승부를 가져가

게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박찬호는 지난 시즌 42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도루왕'에 올랐다. KIA 유일의 '타이를 홀더'로 자존심을 지켰던 박찬호지만 올 시즌 도루 순위는 20개로 전체 4위다. 개인 도루 욕심 보다는 팀 득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박찬호의 설명이다. KIA에는 박찬호와 함께 최원준, 김도영까지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주력의 선수들이 포진해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박찬호는 "많은 도루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만약 좌타자인 (최)원준이가 뒤에 있다고 하면 1-2루 간으로 칠 때 안타 확률이 높아진다. 내가 1루에 있을 때 승부하는 게 더 유리하다"며 "원준이가 1루에 있을 때 타석에서 상대 볼 배합을 느껴봤을 때도 발 빠른 주자가 있는 게 좋다. 다리 컨디션이 좋지 않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도루 시도를 많이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 빠른 선수들이 많아서 좋은 부분이 도루 이런 것 보다는 장타성 타구가 나올 때 득점력이 높아지는 부분인 것 같다. 나나 최원준, 김도영이 1루에 있으면 무조건 홈에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 아웃 카운트 소모하기 전에 홈에 갈 수 있으니가 도루는 둘째 치고 이런 부분이 이득인 것 같다. 뒤에 장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 좋다"고 덧붙였다.

박찬호는 지난 가을 KT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통해 간절하게 바라던 '포스트 시즌 출전'이라는 꿈을 이뤘다. 큰 무대에서 3안타 1도루의 활약도 선보였지만 경기 무기력한 패배로 끝나면서 박찬호에게는 아쉬움 가득한 첫 '가을잔치'가 됐다.

약바리 박찬호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더 높은 곳에서 더 오래 가을 야구를 하겠다는 각오다.

박찬호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도 똑같다. 톱타자로 들어가도 부담은 안 된다. 잘 칠 때 한 타석이라도 더 들어가면 좋다. 무엇보다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든 역할을 하고 싶다. 9월 2차에서 출루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내가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되는 게 너무 기분 나쁘다"며 "매 시즌, 매 경기 똑같다. 지려고 하는 경기는 없다. 이기려고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우승자 241억 '돈잔치' 페덱스컵 김주형·임성재·김시우 동시 출격

PGA 투어 최종전 24일 개막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2-2023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투어 챔피언십이 24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파70·7346야드)에서 열린다.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3개 대회 중 마지막 대회이기도 한 투어 챔피언십에선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까지 선수들의 시즌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 상위 30명만 남아 경쟁한다.

페덱스컵 챔피언에게는 보너스 1800만 달러(약 241억3000만원)를 주고, 최하위인 30위도 상금 50만 달러(약 6억7000만원)를 가져간다.

투어 챔피언십에선 현재 페덱스컵 순위에 따라 '보너스 타수'가 적을수록 선수들이 대회를 시작하는 타수가 다르다.

페덱스컵 랭킹 1위는 10언더파에서 1라운드를 시작하고, 2위는 8언더파에서 출발하는 방식이다. 3위는 7언더파, 4위 6언더파, 5위 5언더파, 6~10위는 4언더파를 받는다. 11~15위 3언더파, 16~20위 2언더파, 21~25위는 1언더파이며, 26위부터 30위는 보너스 타수가 없다.

보너스 타수는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 날 대회 우승자가 해당 시즌 페덱스컵 챔피언에 오를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도입된 장치다.

지난 시즌엔 스킵 세플러(미국)가 1위로 출발했으나 7위로 시작한 로리 매컬로이(북아일랜드)가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페덱스컵 챔피언에 오른 바 있다.

현재 세계랭킹 1위인 세플러는 이번 시즌에도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는 가운데 10언더파를 안고 투어 챔피언십에 나선다. 세플러는 아직 페덱스컵 챔피언에 오를 적은 없다.

지난주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이 페덱스컵 2위로 8언더파에서 시작하며, 세계랭킹 2위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매컬로이는 지난 시즌보다 나은 페덱스컵 3위로 출발해 2년 연속 우승을 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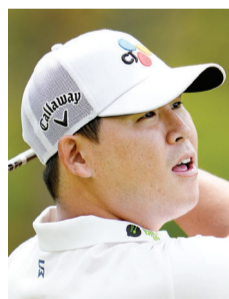
매컬로이가 올해도 페덱스컵 챔피언에 오르려면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4회로 늘릴 수 있다. 그는



김주형



임성재



김시우

6타 차 뒤집기에 성공했던 지난해 통산 3번째 페덱스컵 챔피언에 올라 두 차례 우승한 타이거 우즈(미국)를 밀어내고 역대 최다 우승 신기록을 작성했다.

PGA 투어 홈페이지가 대회 전 매기는 '파워 랭킹'에서는 호블란이 1위로 꼽혔고, 매컬로이, 세플러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는 지난해 2명(임성재·이경훈)에서 3명(김주형·임성재·김시우)으로 늘었다.

PGA 투어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보내는 김주형이 플레이오프 2차전까지 페덱스컵 순위 16위에 이름을 올리며 생애 처음으로 투어 챔피언십 무대를 밟게 됐다.

지난해 투어 챔피언십 사상 한국 선수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했던 임성재는 이번 시즌엔 플레이오프 2차전까지 17위에 자리한 가운데 5년 연속 출전을 앞뒀다.

페덱스컵 순위 20위인 김시우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투어 챔피언십에 복귀한다.

김주형과 임성재, 김시우 모두 2언더파로 대회를 시작한다.

이들 중 최근 감각이 가장 좋은 건 임성재다.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6위, 2차전 BMW 챔피언십에서 7위로 연속 톱10을 기록 중인 그는 이번 대회 '파워 랭킹'에서 7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광주FC 허율·엄지성 올림픽대표팀에 발탁

U-23 아시안컵도 준비

광주FC의 허율과 엄지성이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에 소집됐다.

대학축구협회가 다음달 진행되는 올림픽 1차 예선 겸 AFC U-23 아시안컵 예선에 나갈 올림픽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예선 참가 엔트리는 23명이지만 부상 변수 등을 감안해 26명을 명단에 포함했다.

22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은 28일 창원에 소집돼 9월 3일까지 훈련을 소화한다. 이후 23인의 최종 명단이 확정된다.

광주 '에이스' 엄지성, '장신 공격수' 허율과 함께 백종범(FC서울), 김주찬(수원삼성) 등 최근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수 발탁됐다. 김포 FC로 임대된 조성권과 지난 6월 아르헨티나 U-20 월드컵 4강 멤버인 골키퍼 김준홍(김천상무)과 배준호(대전하나시티즌), 박창우(전북현대)도 명단에 포함됐다.

소집 멤버 중 권혁규(셀틱·스코틀랜드), 이현주(베렌스바덴·독일), 정상빈(미네소타·미국) 등 3명의 해외파는 예선 참가 명단에 포함될 경우 다음달 4일 합류할 예정이다.

파리 올림픽 아시아 1차 예선 겸 2024 AFC U-23 아시안컵 예선 경기는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창원축구센터에서 진행된다. B조에 속한 한국은 6일 카타르, 9일 키르기스스탄, 12일 미얀마를 상대한다.

예선 11개조의 각조 1위팀과 조 2위 중 상위 4개 팀 그리고 본선 개최국 카타르까지 총 16개 팀이 U-23 아시안컵 본선 티켓을 얻는다.

2024 AFC U-23 아시안컵 본선은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을 겸해서 내년 4월에 치러지며, 대회 상위 3개 팀이 올림픽 본선 무대에 직행한다. 4위 팀은 아프리카 예선 4위 팀과 올림픽 출전권을 두고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소집 명단을 발표한 황선홍 감독은 "파리올림픽으로 가는 첫 번째 골목의 대회이기 때문에 3전 전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역시 황선홍 감독이 이끌고 있는 허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도 9월 4일부터 창원에서 훈련을 소화한다.

광주 '살림꾼' 정호연 등 K리그 선수들과 소집 가능한 해외파들이 참가한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창원 훈련은 12일까지 진행된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13일 파주NFC로 이동해 15일까지 추가 훈련을



허율

엄지성

한다. 이후 16일 중국으로 출국해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올림픽 1차 예선 겸 AFC U-23 아시안컵 예선 대비 소집 명단(26명)

▲GK = 김준홍(전북현대), 김준홍(김천상무), 백종범(FC서울) ▲DF = 조성권(김포FC), 민경현(인천유나이티드), 박창우(전북현대), 변준수(대전하나시티즌), 서명관(부천FC), 이태석(FC서울), 조위재(부산아이파크), 조현택(울산현대) ▲MF = 엄지성(광주FC), 강윤구(울산현대), 강현목(김천상무), 권혁규(셀틱FC), 김주찬(수원삼성), 박창환(서울이랜드), 배준호(대전하나시티즌), 백상훈(FC서울), 오재학(전북현대), 이진웅(대구FC), 이현주(베렌스바덴), 전병관(대전하나시티즌), 정상빈(미네소타유나이티드) ▲FW = 허율(광주FC), 김진진(FC서울)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하성 만루홈런 폭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이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열린 2023 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경기 2회에 만루 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김하성은 이날 홈런으로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300 안타를 달성했다. 김하성은 아시아 출신 메이저리그 내야수 최초로 '20홈런-20도루 클럽' 가입까지 홈런 3개만을 남겨두게 됐다. /연합뉴스